

민주 당대표 이재명 vs 김두관 '2파전'... "추대는 없다"

김 "유례 없는 제약적 당대표" 직격 이, 오늘 출마 선언... 정책비전 제시 '어대명' 분위기 속 득표를 관심 쏠려 최고위원 12명 출마... 경쟁 후끈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단독 추대나 찬반 투표는 하지 않게 됐다.

김두관 전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9일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약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를 키워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

우리가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질척 같은 밤에 번갯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경남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 선거의 구심점이 돼 달라는 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경기 김포갑을 떠나 경남 양산에 출마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 영남권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아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을 다 잡았지만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패해 낙선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연임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생 회복 등에 대한 정책 비전을 포함한 '2기 체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이 후보가 출마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

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가 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혁신으로 더 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역설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경선은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해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얼마의 득표를 올리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 경쟁은 뜨겁다. 이날까지 출마를 선언한 사람만 12명에 달하면서 예비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재선의 민형배 의원(광주광산)은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민중적인 최고위원이 돼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에선 한병도·송갑석·서삼석 후보에

이어 4번째 도전이다.

현재까지 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이인주·전현희 의원, 재선 강선우·김병주·한준호 의원, 조선 이성운 의원과 원외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김지호 부대변인, 최대호 안양시장·박완희 청주시의원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고위원 후보는 진명(진이재명) 일색이다. 당 안팎에서는 '명심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은 대표 후보가 4명,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이면 14일 예비 경선을 치른다.

최고위원은 예비 경선을 통해 8명으로 추린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상정 여부 주목

문금주 대표 발의...상임위 회부 신청한 행안위원장 소관 '긍정적' 여야 대립 등 변수 장기화 전망도

전남도가 추진중인 특별자치도의 설립 근거가 될 특별법이 7월 국회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대표발의 후 1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에 회부됐다.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전북·대전·경기·비례대표 7명도 힘을 더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와 관련된 10개 정부부처 의견 취합, 입법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되며, 체계지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정부 이송 후 정식 공포되게 된다.

전북특자치도의 경우 2022년 8월 법안 발의 후 1년6개월 만에 출범했고, 제주특자치도 역시 2005년 기본구상에 의거, 이듬해 7월 출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전남특자치도도 대형 변수가 없는 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6년 상반기 중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 출신 3선 의원인 신정훈 의원이 소

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긍정적 배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12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전남특자치도는 특히, 지역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도록 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인구감소지역 학생교육수당 지급, 첨단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신재생 집적화단지,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 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는 기존 특자치도와 차별화된 조항들이다.

그러나 7월 국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 민생회복지원금 등 뜨거운 쟁점들이 즐비해 본회의 문턱까지 가 시발길이 예상된다. 여당과 거야(巨野)의 강대강 대치와 국회 파행이 극에 달할 경우 법안 심사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체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많다"면서 "특자치도 설치를 통해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 보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 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하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토록 규정했다.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기후위기로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가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토론에 대한 종결을 표결하고 있다. 뉴스

'호남 최고위원 나올까' 민주 민형배·이성운 출사표

민 "민주당 자산 이재명 지킬 것" 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겠다" 해남출신 최대호 안양시장도 가세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출신 최고위원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달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호남에서 민형배(광주 광산)·이성운(전북 전주) 의원이 출마를 도전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가 안심하고 일 맡길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민중적인 최고위원이 돼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짜증 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 무



민형배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도함에 맞짱 뜰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맞짱 뜨겠다"고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출마기념회를 여는 등 최고위원 출마가 유력했던 박 구청장은 "광산구에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지속가능 일자리와 동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가 일자리 개혁 등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당선을 위해 힘껏 돕겠다"고 우회적으로 불출마 뜻을 내비쳤다.

박 청장은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한 것은 맞다"며 "다만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

자의(KDLC)서 같은 원외 인사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지지하기로 합의해 출마를 접게 됐다"고 밝혔다.

KDLC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재명 전 대표가 창립·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린 조직이다.

해남 출신인 최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인사로서 당 집행부에 들어가 자치분권시대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정당을 혁신하겠다"며 "그동안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도부 입성이 번번이 좌절됐다. 자치분권 실현과 더불어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나와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8·18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을 9~10일 이틀 동안 받는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는 1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14일 예비경선을 통해 8명으로 압축한다.

서울=김선욱·정성현 기자

전남도의회, 제5대 대변인에 이재태 의원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9일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을 제5대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의회 대변인은 의장이 선임하며, 전남도의회 주요시책과 의정활동 홍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외 공식입장 표명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이재태 의원은 "전남도의회 의정활동을 더 많은 도민과 공유하고 더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지현 기자